

발행처: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임기선 요셉  
주소: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02 8756 3333

# 시드니가톨릭신문

##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정영수 요한

VOL. 109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요한 14,20 참조)

2014년 7월 1일 (월간)

##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열린 시티 성체거동 행렬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가



님들, 수녀님들과 함께 참석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리는 날이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최후의 만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주님의 수난 시기였기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섰다.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안정되자 성주간이 아닌 때 성체 축일을 지내고 싶어 했다. 이렇게 해서 13세기부터 ‘성체와 성혈 축일’이 등장했다. 서로 각기 지켜지던 두 축일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하나로 합쳐졌다.

는 강론을 통해 “성체와 성혈 안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 현존하신다”고 강조하고, 요즘 만연하는 소셜미디어네트워크 활동에 빗대어 “주님은 가짜가 아닌 진짜의 현실 안에서 꾸밈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한 굳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믿지 않는 자를 새로 믿게 하고 신심이 가벼운 자들의 믿음이 두터워지는 좋은 시간이었다.

영어로 된 행사 제목이 말해주듯이 성체 거동 행렬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거리로 나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얻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에 도착해서는 각 교회가 가지고 온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지향이 담긴 노트북(Book of life)이 제단에 바쳐졌다.

피터 커민소리(Peter A Comensoli) 대교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6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드니 대교구는 성체거동 행렬(Walk with Christ)을 주최했다.

성체는 시드니 시내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서 출발해 세인트 메리 대성당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성체 뒤로는 다민족 교회에서 온 많은 신

자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뒤따랐다. 저마다 교회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묵주기도를 올리며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이였다. 몸이 불편한 신자는 휠체어를 끌고 행렬의 인파에 끼었으며 어린아이를 태운 유모차도 뒤따랐다. 온 식구가 함께 출동한 가족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시드니 한인천주교회 교우들도 본당 신부



## 공동체 설립 40주년을 향한 사목지표

소공동체와 레지오가 활발한 공동체

###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선교로 나가는 공동체]

우리 시드니 한인 성당이 설립되고 체계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지 4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76년 11월 7일 30여명의 작은 공동체가 첫 한국어 미사를 드리던 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는 빛나는 업적을 거듭 이루어 왔습니다.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성당과 기념관을 건립하고 놀랍게 공동체 성장을 이끈 우리 교우들의 숨은 노고와 희생이 곳곳에서 짙은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40주년을 향해 나가는 사목지표는 ‘소공동체와 레지오가 활발한 공동체’입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복음에서 삶으로 움직이는 친교의 소공동체, 삶에서 선교로 담대하게 앞장서는 멋진 레지오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소공동체는 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에 따라 말씀과 삶과 성체를 연결시키는 작은 교회입니다. 소공동체는 신앙 따로 삶 따로 유리된 미성숙한 신앙에서 점점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고 공의회가 천명한 친교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신심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주는 복음화 운동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역사에서 선교에 빛나는 성과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레지오는 우리 정서에 잘 맞는 신심단체입니다.

소공동체와 레지오는 상호보완 되면서 복음화를 목표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소공동체는 레지오를 통해 강화되고 레지오는 소공동체를 통해 복음으로 성숙됩니다. 소공동체는 선교의 텃밭으로 레지오 단원은 반드시 소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선교활동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소공동체가 활발해지면 레지오가 활성화되면서 (본당)공동체가 튼튼해집니다.

교우 여러분!

공동체 설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소공동체와 레지오가 활발한 공동체’의 대열에 함께하여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선교로 나가는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냅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소공동체로 친교를 이루고 레지오가 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도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집시다. 온갖 유혹이 우리 마음을 흔들다면 믿음의 기적을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마르 9,23)

2014년 6월 8일 성령강림 대축일에 주임신부 임기선(요셉)

#### 〈공동체 주요 사목방향〉

1. 소공동체의 내부적 변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봉사자를 양성하고 모임과 활동의 역동성을 찾는다.
2. 레지오 마리아의 내부적 변화: 단원교육으로 단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간부를 양성한다.
3.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아의 연대활동: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아가 연대하여 실질적이고 성숙한 복음화를 이룬다.

##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의 성화(聖化)’

임기선 요셉 주임신부님은 6월 15일 ‘레지오 전 단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배움 등을 함께 나누었다.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 개개인의 성화(聖化)’에 있으며 자신을 성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기도와 활동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평신도들도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며 일상생활 즉 세속 중에 평신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의 사도직’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신도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이

를 ‘평신도의 예언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세속에서 수행하는 ‘평신도의 왕직’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레지오의 사도직은 이러한 평신도의 사도직을 수행할 때 항상 성모님과 함께 해서 성모님을 세상에 모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임신부님은 “레지오 단원들은 ‘고마리’가 돼야 한다”고 하셨다. 고마리는 오염된 곳이나 시궁창에 피는 잡초로 고맙게도 수질 정화를 시켜준다. 고마운 풀이라는 뜻으로 ‘고마리’라 이름 붙여졌고, 더러운 곳일수록 더욱 더 뿌리를 내리는 이 고마리 같은 존재가 레지오 단원들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반갑고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지난달 15일 가톨릭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비자 23명이 여러 사제들과 교우들의 축하 속에서 입교식에 치렀다.

본격적으로 입교식이 시작되기 전, 임기선 요셉 주임신부님은 예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고 다정한 대화로 예비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셨다. 입교식을 마친 이들 23명의 예비



자들은 10개월간의 교리공부를 마친 후 세례를 받게 된다.

## 파란 하늘에 퍼진 멋진 함성



“준비됐나요” “네”

지난달 21일 성당 옆 공원에서 제2회 시드니한인천주교회 한글학교(교장 임기선 요셉 주임신부)의 운동회가 열렸다. 이날 운동회에는 유치부부터 9학년 기

초반까지의 학생들이 참가해 백팀과 청팀으로 나뉘어 공굴리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의 3종목을 겨뤘다. 양팀의 응원전도 볼만했다. 또한 저학년 학생들의 질서 유지와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주목을 받았다.

단결심과 협동심으로 뭉쳐 팀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경기를 마친 학생들은 승패를 가릴 때마다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건강하게 보낸 하루였다. 경기결과 청팀 650점, 백팀 500점으로 청팀이 승리했다. 한글학교는 7월 19일 개학한다.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명순 데레사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영양돌출전문점

**북창동 순두부**

9868 4300 박만원 (토마스)

10/74 RAWSON ST, EPPING

**글로리 병원**  
Glory Medical Centre

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 MBBS(Syd), FRACGP

원장 이육배 / Dr U.B. Lee

Mon - Fri 9am - 6pm / Sat 9am - 1pm

18 Bridge St, Lidcombe

T.9649 3333 F.9649 3366

**Oh-My**

오-마이 김밥

파티, 결혼 및 장례 음식

el 9718 1118 / Mob 0416 209 750

594 Canterbury Rd. Belmore

**i see OPTICAL**

아이씨 안경원

정밀한 시력검사  
최상의 고객만족  
각종개인보험 즉석처리

국내경, 망막 황반변성, 백내장, 시야검사  
당뇨 환자의 눈검사, 어린이 시력진단  
렌즈수술 전문의 권의서

한국인검안사 6명 근무

T 9858 3886 116 Rowe St Eastwood 2122 (미라식당옆)

**삼성한의원**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원장: 강 성후(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진료안내 및 예약 9746 3537

▶ Strathfield 본원 -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 Lidcombe 본원 - 1-3 Mary St Lidcombe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대호여행사**  
EASTWOOD

김기남 마리안나 이스트우드 9874 3311  
Mobile 0414 433 611

대한항공 판매 대리점, 아시아나 특가발권  
전세계 항공 예약 및 호텔 판매





## 하느님의 종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바다를 보면 떠오르는 순교자가 있다. 제주도의 첫 영세자이며 순교자인 하느님의 종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1816-1867년)이다. 조선의 격동기에 소설보다 더욱 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다. 제주도 함덕 출신으로 무역을 하던 평범한 섬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생의 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1857년 2월 18일 그의 상선(商船)은 풍랑을 만나 망망대해(茫茫大海)를 40일간 표류했다. 그 와중(渦中)에 다른 동료 선원들은 굶주림으로 모두 세상을 떠나고, 김기량은 3월경 중국 광둥해역에서 영국 배에 의해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구조되었다. 홍콩의 난파선 관리소는 그를 일본인이라 생각하고 일어에 능통한 프랑스 선교사 메르메 신부를 불렀다. 이분은 김기량의 모자 모양을 보고서 바로 조선인임을 알아냈다. 이후 신부의 주선으로 때마침 홍콩 파리 외방 선교회의 극동 대표부에서 휴양 중이던 조선 신학생 이만돌 바울리노를 만날 수가 있었다. 김기량은 여기에서 80여일 머물면서 바울리노에게 교리를 배워, 1857년 5월 31일 선교회의 부 주교 루세이유(Rdusseille) 신부로부터 영세 입교하였다. 조선 후기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외국 출입이 엄금된 시절, 이국 바다를 표류하다가 외국 배에 의해 구조된 것, 낯선 이국에서 기적적으로 조선인을 만난 것, 그 조선인이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천주학을 신봉하는 신학생이라는 것, 그에게 교리를 배워 난생 처음 보는 서양인에게 세례를 받고 입교한 것, 이런 우연을 상상하고 꿈이나 꾸어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신앙은 우연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을 맞들이고 나서 뒤 돌아 보면, “그것은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김기량은 세례 받은 이듬해인 1858년 조선 국경인 의주부를 거쳐 귀국해, 바울리노가

전해준 서한과 안내 정보를 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겪으며 교우촌을 찾아갔다. 다행히 교우촌에 도달하여 최양업 신부와 페롱 스타니슬라오 신부(1827-1903년)를 만날 수 있었다. 이때 최신부는 오두재(경북 상주군)에 머물고 페롱 신부는 이곳에서 10리 떨어진 산막골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때에 최양업 신부는 김기량의 성실함과 그의 신앙에 대한 열성을 보고 그가 제주도의 훌륭한 사도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최신부는 교회 서적과 십자고상 등 성물(聖物)을 주면서 제주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했다. 그 때에 페롱 신부도 같은 생각이었다. 최양업 신부는 1858년 10월 4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기량에 대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교우를 찾으려는 열성을 보면 그는 진실하고 믿음만한 사람이며 장차 좋은 교우가 될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 않은 제주도에 천주교를 전파할 사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적었다.

그 후 그는 제주도에 귀향하여 이국에서 생명과 바꾸며 찾은 진리를 가족과 사공들에게 전하여 20명을 입교 시키니, 제주도에 마침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이다. 신유박해(1801년) 때에 황사영 알렉시오의 부인 정난주 마리아가 제주도로 유배간 것을 제외하면 1850년까지 제주도에 한명의 신자도 없었다.---여기서 정난주 마리아에 대해 간단히 적어본다. 정난주(1773~1838년)는 정약종의 맏형 정약현의 장녀로 숙부 정약전에게 교리를 배우고, 고모부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외삼촌 이벽에게 견고한 신앙을 전수 받았다. 신유박해(1801년)때에 남편 황사영은 대역죄인으로 몰려 순교하고, 시어머니 이윤혜는 거제도에서 두 살 박이 어린 아들은 추자도로, 정난주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녀는 일생 추자도를 바라보며 생사조차 모르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한(限)과 믿음을 파도에 실어 보내면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황사영의 아내답게 올곧게 순교의 삶을 살았다. 황사영의 아들 황경환의 6대손인 황이정이 현재 추자도 예초리에 살고있다.--- 김기량은 육지를 오가며 4대 조선교구장 성 베르뇌 주교님을 뵈고 성사를 보는 등 박해시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신앙의 사도로서 열심히 수계 생활을 하였다. 복음을 전하려고 배편으로 이리 저리 이동하던 중 1865년 또 다시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난파선이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당시에 일본도 박해시대이었지만 나가사키는 “동양의 소로마”로 일컬어지는 신앙의 도시인데, 그곳에서 일본 교구장 프티장 신부를 만난 것이다. 조선 최초의 성지순례자(?)라

고나 할까? 표류할 때마다 신앙과 연관 있는 땅에서 구조되니 바다의 별 성모님의 땅토를 두른 사나이가 아닌가? 바다에서 하느님을 만난 김기량,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것도 두 번이나 만난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죽음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만난 하느님!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준 사랑의 하느님이었기에, 어떤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험벗음도, 위험도, 갈도 그를 하느님에게서 갈라놓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로마 8,35 참조)

귀국하여 육지로 나와 리델 신부님을 뵈고 그 자리에서 사공 두 명을 영세 시키고, 다음과 같이 바다만큼이나 깊은 믿음이 용솟

에 대못을 박기까지 했다. 이렇게 제주 출신의 김기량이 장렬하게 순교하니 그때 그의 나이 51세였다. 순교자의 고향인 제주도 조천 함덕에는 순교자의 현양비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우뚝 서 있다. 현양비는 선두(船頭) 모양의 받침에 출렁이는 파도가 조각되어 있으며 비신(碑身)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박해자가 박은 굵은 대못이 박혀 있다. 박해자가 박은 대못은 이제 순례자의 가슴에 믿음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 온 천지에 넘실대는 은총의 바다에서 출렁이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한가운대를 지난다 해도 나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나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불 한 가운데를 걷는



음치는 천주가사를 지어 불렀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어와 벗님네야 순교의 길로 나아가세. 그러나 순교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네. 나의 평생 소원은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요,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천당뿐이로다. 펠릭스 베드로는 능히 주님 대전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김기량은 1866년 병인박해가 한창일 무렵 세례 받을 예비 신자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거제도에서 나갔다가 그곳에서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다른 교우 4명과 함께 1866년 9월에 통영관아로 이송된 그는 혹독한 문초를 받는 과정에서 몇몇이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갇힌 교우들에게 “나는 지명하여 죽을 것이니, 그대들도 마음을 변치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교우들에게 권면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1867년 1월 교수형으로 순교했다. 게다가 관원들은 김기량이 다시 살아 날 것을 두려워하여 가슴

다 해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이사 43, 1-2) 평생 소원인 천주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영복을 누리고 계신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님! 세파에 시달리며 표류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다음은 시복 예정자 124위 중에 마지막 ‘하느님의 종’ 윤봉문 요셉에 대해 기록할 예정이다.

후기 : 제주도에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전례행위와 전교활동이 시작된 것은 1899년 5월 26일부터이다. 이보다 앞서 신앙의 불모지인 제주도에 기쁜 소식을 처음 전한 분은 하느님의 종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이다.

(기고 : 이진원 미카엘)



“사랑을 드리고 신료받는 병원” 성모치과와의 약속입니다.

###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 AECO DENTURE CLINIC

### 에코 틀니 전문 클리닉

Dental Prosthetist 이상현 안토니오

“정성을 다해 틀니를 제작해 드립니다.”

**전체/부분 틀니**  
부서지거나 손상된 틀니 수정/교정  
헛걸거나 맞지 않는 틀니 수정/교정

예약 전화 9874 1099, 0407 380 390  
주소 1/19 Rowe Street Eastwood

### 호주 청정우·화환 한국택배 전문업체

### 동서유통(벨모아)

원하시는 부위를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전지역 꽃배달** 경조사용 꽃 배달 서비스 실시!!!

동서유통 이수용 다니엘 **070 7884 7560**

(동서 정육점 직영)  
351A BURWOOD RD.  
BELMORE 2192  
T. 9750-2694  
M. 0425 213 503

### NEWBORN NB

BUILDING & CARPENTRY

신축, 증축, 실내 인테리어, 샵피팅  
파골라, 데크, 마루 시공, 화장실 레노베이션, 페인팅  
간단한 핸드맨일 문의도 환영

ABN : 35 189 753 315 / LICENCE NO : 2579988C

**M 0430 379 269 M 0421 073 706**

General Carpentry / Maintenance / Repair / Basement / Shop Fitting  
Remodeling / Owner Builder Assistance & Renovation  
Patio / deck / Bathroom / Kitchen





## 알림

가톨릭 신문은 7월호부터, 주보는 8월 3일 주일부터 새로운 얼굴을 갖습니다.  
가톨릭 신문이 기존의 8면에서 4면으로 얇아짐에 따라 '살아 숨쉬는

공동체' 는 6월 29일 주일부터 주보로 들어가게 되며, 매주 복음나누기와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8월 3일 주일부터 주보는 컬러로 인쇄되고 주보 하단에는 광고가 들

어가게 됩니다. 광고 게재에 관심 있는 교우는 사무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보 이름을 공모 중에 있으니 **7월 6일까지 이메일** ([info@sydneykcc.org](mailto:info@sydneykcc.org))로 보내주

시나 사무실 사무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목.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mailto:info@sydneykcc.org)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 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mailto:info@sydneykcc.org)

**예담**  
Ye Dam Rice Cake

- 떡 케익
- 영양떡
- 이바지/페백
- 답례떡
- 일반떡
- 선물세트

20년 전통의 솜맛 그대로~ 정성스럽게 빚어 만듭니다.

**02 9740 5057**  
745 Canterbury Rd Belmore NSW

**Silverwater POWER GOLF ACADEMY**  
실버워터 파워 골프 아카데미

JONG GAP KIM 김종갑 마태오  
Unit 2/47 Vore St, Silverwater NSW 2128  
T 02 9748 0002  
M 0412 108 340

**2013년 말 완공 예정의 좋은 투자 기회**

한 주택 두 가구!!  
최대 7.6% 연 임대 수입 예상  
전액 Stamp Duty 면제 (\$600,000 이하)  
한인성당 도보 2-3분 거리

대표 권기향 0432 379 972 (02) 9764 2999

**삼성모터스**

All Mechanical Services & Repairs  
Pink Slip  
Blue Slip  
LPG Inspection  
RTA 등록 □ 무료 대행  
Green Slip

Since 1989

**TEL : 02 9683 1045**  
Unit 87/23-25 Windsor Rd. Northmead

**에핑건강식품**

각종 꿀, 각종 건강식품  
각종 화장품, 양모 제품 및 호주 토산품

**9876 8282(빨리빨리)/9876 6071**  
**0404 070 338(24시간)**  
27 Rawson st. Epping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손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머리방**

에터미 회원님들께는 특별할인을 해드립니다  
〈꼭 예약바랍니다〉

Tel: 8084 8417 / Mob: 0430 477 723  
12 Edgar St., Eastwood

**신개념 운동 재활병원**  
KIM'S HEALTHCARE CLINIC

치료 마사지 / 운동 물리치료  
체중 관리 / 다이어트  
소그룹 운동 / 퍼스널 트레이닝  
뷰티 트리트먼트

WWW.KIMSCLINIC.COM.AU

스트라스필드 9764 1088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4층  
이스트우드 9858 2200 Level 2, 29 Rowe St. Eastwood

**리드컴 안경원**

다양한 제품  
친절한 서비스  
최신 신상품

최신식 설비에 의한 정밀 시력검사  
Medicare 및 개인보험 이용가능

**9643 1000**  
11 Joseph St, Lidcombe NSW 2135  
(중양식품 맞은편, 해피마트 옆)

**의전 홈플러스**

의류, 주류, 토산품, 건강식품, 식품, 생활용품

블라인드 & 커튼 사업부 : 블라인드, 커튼, 벽지  
무료견적, 직접생산, 빠른시공

Tel ; 9742 1188 / Mob. 0400 11 8282  
49 - 51 Punchbowl Road, Belfield

**김상진 회계사**  
절세 신속 성실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ABN, GST 회사 설립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균관대 법대졸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바른길**  
법률사무소

주요 법률서비스  
교통사고, 음주운전, 민·형사 소송, 부동산, 비즈니스 매매, 각종계약서  
Suite 7 Level 1 58 The Boulevard Strathfield  
**T 02 9715 1771, F 02 9715 2771**  
**M 0433 573 213**

**SDT**  
시드니 일일관광

시드니 일일관광  
포트 스테판, 블루마운틴,  
시드니 시내관광  
멜번, 케언즈, 뉴질랜드 남섬 등

**8214 8822** G Floor 302 Pitt St. Sydney  
**0411 457 222** 김예환 스테파노

**다이아몬드생수**

"맹그로브 마운틴의  
천연 심층 암반수"

15리터  
**\$9.90**  
Cooler  
대여해 드립니다.

0416 100 499 / 0404 044 117

**WISDOM EDUCATION**  
OC, SELECTIVE & HSC SPECIALISTS

✓ Primary School subjects,  
✓ High School subjects &  
✓ HSC subjects

TERM2 에 등록하시면 **매학기마다 20% 할인**

Tel: (02) 8710 3466 | 3 John St, LIDCOMBE  
[www.WisdomEducation.com.au](http://www.WisdomEducation.com.au)  
\*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라스마니아로 오세요**

공항 픽업 부터 관광 숙박 식사 까지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단체, 피칭 환영

**0400 876 663**  
**03 6273 1162** 홍 순기(다니엘)

Healthier choice for Healthier Living

**신선 자연건강식품**

**HealthPlus**  
**MEKEN**

버우드 본점 Tel: 02 9744 7000 / 226 Burwood Rd, Burwood NSW 2134  
시티점 Tel: 02 9264 5200 / Shop 10, 324 Pitt St, Sydney NSW 2000

**제일종합금융**

출론 · 비즈니스론 · 상업용자 · 건설용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매장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스/트/우드

**하나식품**

모든 식료품, 신선한 과일과 야채, 친절할 서비스

- 박정철 요한 -

**Tel: 9874 1581** 27 Railway Pde. Eastwood

**차량용 블랙박스 & 자동차 악세사리**

스마트 아이에서 해결하세요

전화 : 02 8041 2110 or 0488 36 88 22

Shop 16, 16-20 Henley Rd Homebush West 2140  
(플래밍턴 역에서 3분)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bush

Website [www.hbmusic.com.au](http://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mailto: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콩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벤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실용이 있는 곳에 세기가 몰려온다!

**한진IT**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키폰,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

**TRUE ROSES**

각종 화환 / 웨딩전문

Shop 19/222-230 Church St. Paramatta

**9633 1616**  
**0423 832 854**